

권혁홍 회장 취임 인사차 안동방문

권혁홍 회장, 큰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에게 골판지 침대 만들어 보내주기도

권혁홍 회장은 6월 24일 시조 태사공 묘소와 낭중 공 단소에 고구제를 봉행하고 분향원로회 회원들과 점심식사를 위해 청록한정식 식당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는 분향원로회 회원 권정창 전 제례위원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권계동 전 교육장, 권재주 원로원 원장, 권기덕 안동과학대학 이사, 권찬섭 기업 대표,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세묵 전 도의원, 권기호 전 북아공과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권오익 국장과 권갑현 제례위원, 권종구 유사와 권영건 보도부장도 함께 했다.

권혁홍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셋째 제간공(齊簡公) 권귀(權桂)의 후손으로 36세입니다. 제간공은 세종의 누이 경안궁주(慶安宮主)와 결혼하여 태종의 사위로 부마였습니다. 직계 조상은 여주에서 600여 년 동안 세거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서울로 이사하여 저는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골판지 사업을 했습니다. 제지에서 박스까지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선조와 안동권씨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라 안동권씨로서 자부심만은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대부터 사업만 열심히 하다 보니 안동권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권정달 총재님으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르신들께서 대종회 회장을 맡아보라고 여러번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좋은 분이 계실 것이니 다른 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안이 없다며 또 권유하셔서 후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지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 5월 27일 취임식을 하고 총재님과 의논해서 오늘 시조 묘소에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종친 어르신들을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막상 뵈고 보니 든든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마침 재임 중에 3년 후면 권기 1100년을 맞이하는데 여러 어르신들과 종친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미있는 1100년이 되도록 하고 안동권문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자 사임당은 인사말에서 “사임당상(像)을 제 55대에서 제56대와 제57대까지 역임했습니다. 안동 권문에 시집와서 저를 닦고 잘 만드는데 노력했고 어린 모시면서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사임당 칭호는 안동권문으로 시집을 잘 짚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어르신을 만나면 안동권씨로 시집갔다가 대단한 양반 가문으로 갔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동안 어르신 뜻에 꼭 따르려 노력했더니 주변에서 사임당을 시켜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광을 누리는 것은 다 시집을 잘 와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전에 하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태사묘 보물각 관람

니다.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안동종친회관에 도착하니 권철환 회장 등이 권정달 명예회장과 권혁홍 회장, 이경자 사임당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했다. 권기수 별장공과 회장을 비롯하여 권중근 전 파총회장협의회 회장, 권봉도 농동장학회 감사,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 권주연 전 안동종친회장,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익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영건 보도부장 등이 배석했다. 권철환 회장은 “대종회 회장님은 70만의 얼굴이고 고향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회장님 품격만 올리시면 상임위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른길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기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 대종회와 안동종친회가 단합하면 남부럽지 않은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 앞으로 잘 협력했으면 한다. 안동에는 유림들이 많다. 22개 종친회가 있다. 그런데 안동권씨에는 종가가 없다. 회장이 종중을 대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중근 전 파총회장협의회 회장은 “고향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문 이틀째인 6월 25일에는 먼저 하회마을에 위치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가 충효당을 방문했다. 류창해 종손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때문에 들어서자 1999년 4월 21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방문했을 때 편의를 위해 설치한 조그마한 마루가 눈에 띄었다. 여왕인데도 유교의 전통이자 예법에 여자는 안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안방까지는 못 들어갔다고 한다. 그 아쉬움의 여운이 조그마한 마루에 남아 있는 듯했다. 권정달 명예회장은 도영심 여사와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이 한국에 와서 안동을 방문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도영심 여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왜 가야 하느냐고 묻자 안동(安東)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했다고 한다. 안(安) 자는 모자를 쓴 여자가 동(東) 동쪽에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단다. 마루에 올라서니 종손이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쓴 충효당 글씨를 가리키며 충(忠) 자의 위의 동그라미는 왕을 뜻하고 밑에는 신하들이 부족한 형상이다. 효(孝) 자는 아들이 노인을 쫓고 있는 형상이다. 당(堂) 자는 위 어덜할 자 모양은 서까래를 의미하고 그 밑 중간은 벽을 나타내고 벽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형상이다. 라고 설명했다. 서애 선생의 장인은 광평대군이 5대조인 분이라고 했다.

류창해 종손은 여왕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안방으로 안내했다. 안동에서 나는 국화로 우린 국화차의 향기가 은은했다. 종손은 어떤 분이 류가의 훈맥관계를 논문으로 썼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류가와 훈맥을 맺은 성씨로 안동권씨가 제일 많고, 진성이씨 가 그 다음이며, 의성김씨가 세 번째라고 소개했다. 권정달 명예회장은 3년 뒤면 권기 1100년이 된다. 종손이 잘 도와주셨으면 한다. 풍산류씨와 평도 260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종손은 평창공의 사위가 하회류씨 류소이다. 평창군 권웅 선생이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다가 지석을 발견하고 태사공 묘소를 조성했다. 정조 때 경상관찰사가 같이 관리하라고 해서 전체를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평창공과 할머니를 합궐하여 모셨고 지금도 류가에서 외손 봉사를 하고 있다. 서애 선생과 권을 장군이 함께 임진왜란을 대비한 역사도 있다고 말했다. 종손은 일행에게 서애 선생이 저술한 <징비록>을 한권씩 선물했다.

다음은 병산서원을 방문했다. 류한욱 유사께서



권혁홍 회장이 안동사무소 권오익 국장으로부터 안동사무소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도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병산서원은 1605년에 창설했으며 2019년 도산서원, 돈암서원 등 9개의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병산은 병풍 친 산이라고 설명했다. 만대루(晩對樓)는 강학공간인데 병풍을 두른 듯한 산이 절경이다. 만대루는 나무와 기와와 흙으로만 건축했다고 한다. 목재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기둥들, 자연 그대로의 주춧돌, 커다란 통나무를 깎아 만든 계단 등은 한국 전통 건축의 빼어난 멋을 그대로 보여준다. 만대루라는 말은 당나라 두보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 중에 “푸른 절벽처럼 둘러쳐진 산수는 저녁 무렵 마주하기 좋으니”(翠屏宜晚對)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한다. 병산서원 앞산의 능선과 휘어진 듯한 만대루의 옹마루 선은 종묘와 부석사 무량수전과 함께 3대 절경이라고 소개했다.

얼마 전 안동지역에 큰불이 났을 때 하회마을 주변에 소방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24시간 상시 대기했다고 한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권혁홍 회장은 이때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화재지역에 보내주었다고 한다. 냉방에서도 골판지를 깔고 자연 골판지에 구멍이 뚫려 있어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춥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하회탈춤을 관람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안동은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각 문종의 세계기록문화유산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하회탈춤이라는 3대 세계유산이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소개했다. 먼저 날라리와 징과 팽과리, 북, 장구 등이 탈춤의 막을 열었다. 소가 나와서 오줌싸는 모습에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뒤이어 백정이 나오더니 동네 잔치한다며 망치로 소를 때려잡았다. 날카로운 칼로 쓱쓱 잘질하다니 시뻘건 염통과 불알을 떼어낸다. 먼저 소 염통을 들고 다니면서 사서 먹어보라고 흥정한다. 소 염통을 먹으면 염치없는 사람은 염치가 살아난다고 강변한다. 다음은 소 불알을 들고 다니며 양기에 좋으니 내용뽕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치근댄다. 딱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 또 길잡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신세 한탄을 하고, 여자가 등장하자 치마만 두르면 활떡거리는 파게송이 나온다. 술주정뱅이도 비틀거리다. 선비라며 유학자가 나와 양반이고 사대부 자손이라고 으시멘다. 할배가 문하시중을 지냈고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상놈이 나타나 나는 팔대부 자손이고 할배는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팔서육경을 읽었다고 뻐긴다. 양반이 사서육경을 들어봤는데 팔서육경은 처음 들어본 소리로 그게 뭐냐고 묻는다. 그러자 상놈은 팔만대장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 등이라고 줄줄 외우며 인간이 만든 걸치레와 고정관념의 탈을 폭로한다.

하회탈춤은 양반사회의 위선을 웃음으로 풍자한다. 하회탈춤은 뻔뻔한 양반사회의 빈틈을 노려 지엄한 인간의 탈을 벗기는 해학의 극치이다. 백정의 칼끝은 위선적인 양반과 사회의 모순을 여지없이 벗겨버린다.

권혁홍 회장은 관람을 마치고 영주로 가서 권영창 전임 회장을 만나 대종회 운영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향후 대종회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로써 권혁홍 회장은 취임 인사차 방문한 안동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경길에 올랐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행완 편집국장, 이경자 사임당, 권갑현 제례위원, 권혁홍 회장, 권오익 사무국장, 권혁환 권문회 사무총장(왼쪽부터)



분향원로회원과 기념촬영



권혁홍 회장이 분향원로회 회원들에게 회장 취임에 즈음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계유산 병산서원 앞에서



류한욱 유사가 병산서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회탈춤



하회탈춤을 마치고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이경자 사임당이 안동권씨 가문으로 시집을 잘 와서 사임당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 방문



미수 허목의 충효당(忠孝堂) 현판 글씨



서애 류성룡 선생 종가 충효당 방문 차담을 나누고 있다.



충효당에서 류창해 종손과 함께 기념촬영

2026년 춘계 종묘대제②

(지난호에 이어)

○ 종묘대제宗廟大祭 제관祭官 봉무요령奉奏要領을 소개한다.

9. 집준관執尊官 봉무요령

①취위就位：각실 준상尊床 앞에 도착하면 서쪽을 향해 선 다음 흠을 꿇고 촛불을 켜다.

②작주酌酒：신관례晨裸禮에는 먼저 용작龍勺의 복지를 벗기고 “예의사도황사손승자동계예준소서향립禮儀使導皇嗣孫陞自東階詣尊所西向立”이라는 창홀이 나오면 왼쪽 준통(조이鳥舂)의 맥(뎡개)을 열고 용작으로 율창주를 떠서 재량이 반쳐주는 용찬에 붓고 맥을 덮고 용작을 오른쪽 준통(산뢰) 위에 놓는다. ※ 장신(신관: 조이의 율창주), 초헌(희준犧尊의 예제), 아헌(상준象尊의 양제), 종헌(산뢰

山麇의 청주)의 작주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양위의 신실은 두 잔을 따르고, 삼위의 신실은 세 잔, 사위의 신실은 네 잔을 따르고 맥(뎡개)을 덮는다.

③진찬進饌：재량을 도와 준상 위의 작을 쓴 복지를 모두 벗겨 재량에게 준다.

10. 관세위醢洗位 봉무요령

①세울帙詔：황사손에게 한 사람을 세로洗 에서 세작洗勺으로 물을 떠서 부어 주고, 또 한 사람은 반盪을 받들고 세수洗手가 끝나면 수건을 받들어 드린다. 각실 헌관獻官은 관세기醢洗器에 담아놓은 물에 각자各自 관세한다. 집사執事는 집사 관세기 물에 각자 관세한다.

11. 칠사당七祀堂 봉무요령

①칠사당 헌관은 종헌례시終獻禮時에 관세하고 찬인의 인도로 칠사당에 도착하여 칠위七位의 각 신위에 헌작獻爵한다.

②집사執事 1인은 전작奠爵과 독축讀祝을 겸하고 집사 1인은 집준관執尊官과 봉작奉爵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망료시望燎時에는 찬인이 헌관을 서문 밖의 칠사七祀 예감臺坎으로 인도한다.

④축관은 망료시에 칠사당의 축을 봉축奉祝하여 헌관에게 확인시키고 서문 밖 칠사 예감에서 태워 묻는다.

12. 공신당功臣堂 봉무요령

①헌관은 종헌례시終獻禮時에 관세하고 찬인의 인도로 공신당으로 가서 공신功臣 각위各位에 헌잔獻盞한다.

②집사는 헌관을 인도하고 집준관執尊官과 전잔

奠盞 임무를 수행한다.

13. 찬자贊者, 알자謁者, 찬인贊引 봉무요령

찬자는 당하에서 헌관과 제집사 재위자의 국공사배 등을 진행하면서 집례의 보조와 역할을 한다. 알자는 진행 편의상 당상·당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봉무하는데, 당상 알자는 상월대에서 봉무하고 당하 알자는 주로 하월대에서 봉무한다. 찬인은 당하에서 제집사와 칠사 공신 헌관의 인도를 담당한다.

①선배취위先拜就位：집례와 함께 먼저 절하고 봉무할 자리로 간다.

②제집사각취위諸執事各就位：찬인은 제집사를 안내하여 관세한 후 협계까지 인도한다.

③신관례晨裸禮：당하 알자가 각실 초헌관을 안내하여 관세 후 동계(조계) 단하까지 인도하고 기다렸다가 강복위하는 헌관을 헌관석으로 인도한다. 당상 알자는 동계 위에서 초헌관을 맞아 각 실로 인도하고, 헌관이 신실에서 나오면 다시 동계까지 인도

하여 강복위를 돕는다.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시에도 같은 요령으로 하는데 정전 종헌례시 칠사 공신 헌관은 찬인이 인도한다.

④궤식례饋食禮：알자가 천조관, 봉조관을 인도하여 관세한 후 동문으로 나가 찬소에 가서 조俎와 상床을 받든 천조관, 봉조관을 신로神路를 통해 태계 아래까지 인도한다. 천조관, 봉조관이 강복위시에는 당상 알자가 동계(협계)까지 인도하고 당하 알자는 계하階下에서 복위復位를 돕는다.

⑤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례시終獻禮時 알자는 헌관의 인도를 담당한다.

⑥칠사七祀 공신功臣 헌작：찬인은 칠사당, 공신당 헌관과 집사를 관세를 하고 칠사당, 공신당으로 인도한다.

⑦제집사구복배위諸執事俱復拜位：찬인은 동협계에서 제집사를 기다렸다가 인도하여 배위로 간다. 구복배위를 창홀하면 찬자가 국공사배를 시킨다.

〈글·사진 권오달 권도원〉